

20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2] 다음은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호 : 우리 조는 발표 수업 주제를 ‘화가 이중섭의 삶’으로 결정했었지? 선생님께서 ‘발표’는 조장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내가 할게.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누가 맡을 건지 얘기해 볼까?

도윤 : 음, ‘자료 조사’는 우선 도서관에 가서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채원 : ㉠ 그리고 며칠 전 신문에서 봤는데, 요즘 ○○미술관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하더라고. 거기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

민호 :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다. ‘보고서 작성’은 글 잘 쓰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고,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는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하는 게 좋겠지. 그럼 역할을 어떻게 나눌까?

채원 : 우선 각자 하고 싶은 역할에 대해 말해 보는 게 어때?

민호 : 그러자. 그럼 도윤이 넌 어떤 걸 하고 싶어?

도윤 : 난 ‘보고서 작성’이 좋을 것 같아. 글로 정리하는 건 내가 좀 자신 있거든. 근데 우리 조 이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민호 : 그래? 그런데 ㉡ 그 얘기는 우선 역할 분담 끝내고 하면 어떨까? 일단 도윤이는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채원이 넌 뭘 맡을래?

채원 : ㉢ 지난번에 너희들 우리 집에 와 봐서 알 텐데, 우리 집 길 건너편에 바로 도서관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자료 조사’를 하면 좋겠어.

도윤 : ㉣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지난번에 보니까 진짜 가깝더라.

민호 : 좋아! 그러면 채원이는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서영아, 이제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만 남았는데, 괜찮겠어?

서영 : (머뭇거리며) 난…….

채원 : ㉤ 서영아, 괜찮아. 마음 편하게 얘기해 봐.

서영 : 어……, 사실 난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어.

민호 : [A] ‘보고서 작성’은 아까 도윤이가 하기로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서영 : 사실 난 컴퓨터는 잘 못 다루지만, 글쓰기는 좋아하거든.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싶었어.

도윤 : 아, 그래. 서영이가 나보다는 글을 더 잘 쓰더라고. 난 프리젠테이션도 많이 만들어 봤으니까 내가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 볼게. 하하.

서영 : 고마워.

도윤 : 고맙긴 뭘.

민호 : (업지를 치켜세우며) 오, 도윤이 정말 멋진데. 너희들 덕분에 잘 결정된 것 같아. 모두들 고마워!

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자신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 ② ㉡ :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하여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
- ③ ㉢ : 대화 참여자들이 공유하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 ④ ㉣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 ⑤ ㉤ : 상대방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A]의 발화를 수정한다고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공동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소집단 대화에서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때 주도자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 태도보다는, 우선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고,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①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다고? 음,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우선은 각자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자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러면 먼저 얘기한 도윤이의 입장도 들어보자.”
- ② “아, 너도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었구나.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지금이라도 얘기해 줘서 고마워. 그런데 네가 보고서 작성이 하고 싶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니?”
- ③ “그렇구나. 서영이 네 생각도 인정해. 하지만 도윤이 입장도 있으니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 만약 도윤이가 반대한다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 ④ “어, 그래? 그러면 도윤이랑 하고 싶은 게 똑같네. 그러면 서로 입장이 충돌하니까 이따가 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쭙보는 게 좋을 것 같아.”
- ⑤ “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 도윤이가 얘기한 거 들었지? 도윤이가 먼저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네가 양보해 줬으면 좋겠어.”

3.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 법률 연구소에 계신 법률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법률 상식을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당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문제 하나 내 보겠습니다. 만약 스파이더맨이 도시를 파괴하려는 악당들과 싸우다 남의 건물을 부숴서, 부서진 건물은 누가 배상해야 할까요?

진행자: 일반적인 경우라면 건물을 부순 사람이 배상해야겠지만, 이런 경우에 정의를 위해 악당과 싸운 스파이더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전문가: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파이더맨의 행위를 악당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보고 민법 761조 1항에 의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파이더맨의 행위를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악당으로부터 도시를 지키기 위해 싸운 스파이더맨의 행위가 ‘정당행위’이고, 정당행위로 인한 부득이한 손해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군요.

전문가: 네, 맞습니다. 그래야 스파이더맨의 경우처럼 불의를 보고 나섰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없겠죠.

진행자: 그런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드네요. 만약 스파이더맨에게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면 건물 주인은 누구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민법 동일 조항에서는 정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람이 애초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건물 주인은 악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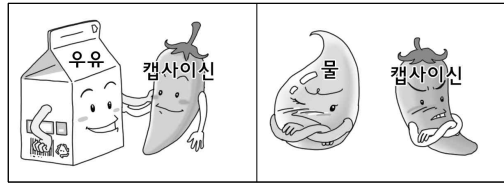
- ① 진행자는 화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며 대담을 진전시키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전문가가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전문가는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진행자의 오해를 바로 잡고 있다.
- ⑤ 전문가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5]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박지호입니다. 여러분, ‘캡사이신’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못 들어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네요. (웃으면서) 그렇다면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청양고추를 먹다가 매워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급한 대로 물을 마셨는데, 매운 맛이 가시기는커녕 점점 더 매운 맛이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다 캡사이신 때문입니다. 캡사이신은 원래 식물이 곰팡이나 병원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낸 천연 물질이기 때문에 자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캡사이신은 아주 매운 맛을 내고 몸에 열이 나도록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왜 매운 맛이 가시지 않을까요? (슬라이드 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그림을 보시죠.



오른쪽 그림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린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캡사이신은 서로를 멀리 합니다. 따라서 혀를 자극하고 있는 캡사이신을 물로는 잘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에서 캡사이신과 우유는 서로 친해 보이지요? 이 두 물질은 모두 무극성이라는 공통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니깐 잘 알고 있지요? (웃으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면, 무극성 물질이란 분자 내에서 전자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분자가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캡사이신은 극성 물질인 물에 더 잘 녹을까요? 아니면 무극성 물질인 우유에 더 잘 녹을까요? (청중의 대답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그렇습니다. 우유에 더 잘 녹겠지요.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 다시 정리하면,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무극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맛을 없애려면 물 대신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 그럼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다음 발표 계획 중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도입
 - 발표할 내용 제시
 -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임을 강조 ㉠
- 전개
 - 캡사이신의 특성 제시
 - 캡사이신의 화학적 속성 제시 ㉡
 -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 ㉢
- 정리
 - 청중의 이해도 점검 ㉣
 - 발표 내용 요약 ㉤

- ① ㉠ ② ㉡ ③ ㉢ ④ ㉣ ⑤ ㉤

5. 위 발표를 들은 청중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의 실제 경험을 들어 흥미를 유발한 것 같아.
- ②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비유적 표현으로 발표자의 심리를 잘 드러낸 것 같아.
- ④ 상황에 맞게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
- ⑤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인 것 같아.

[6~7] 다음은 학생이 학교 신문의 독자투고란에 보내기 위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는 학급회의 시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우리 학교는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회의를 [A] 할 수 있는 시간마저 자습 시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학급회의 시간에 학생들은 학급의 다양한 문제를 의논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생각할 때는 답이 나오지 않았던 학급의 문제들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 제가 최근 본 다큐멘터리에서도 학급회의를 거의 열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 [C] 각해 소극적인 성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더 있습니다.

□ 물론 학급회의를 열어도 의견을 표현하는 데 소극적인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처음 회의를 했을 때 [D] 뿐이지 회의가 반복되면서 소극적이었던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글을 읽는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께서도 학급회의 시간 [E]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급회의를 좀 더 자주 하면 좋겠습니다.

6. 위글의 필자가 택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필자가 속한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를 주제로 설정한다.
- ② 주제와 관련된 필자의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글의 설득력을 높인다.
- ③ 필자가 인식한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 ④ 문제와 관련된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과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글의 내용을 구성한다.
- ⑤ 필자의 글이 실리는 매체가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한다.

7. 위글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서 <보기>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설문 조사(우리 학교 학생 대상)

1. '학급회의 시간이 충분인가'에 대한 응답

부족하지 않다 14%

부족하다 86%

부족하지 않다.

2. 학급회의가 필요한 이유

학급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결정을 부족하다. 기 위해	26%
학급 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6%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므로	24%
기타	13%

(나) 전문가 의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면 청소년들이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줄어들게 되어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 학생들은 의견을 개진하는 절차 등을 배울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급회의 시간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합니다.”

(다) 관련 자료

학생들은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배우는 등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질은 지속적인 회의 참여 경험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 ① [A]: (가)-1을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한다.
- ② [B]: (가)-2를 활용하여, 학급회의를 통해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③ [C]: (나)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면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 ④ [D]: (나)와 (다)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 교육적인 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언급한다.
- ⑤ [E]: (가)와 (다)를 활용하여, 학급회의 시간 편성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8. 다음 [자료]를 읽고 [조건]에 맞게 쓴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교실 자율 좌석제는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 앉아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친한 친구들과끼리 앉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교우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조건]
1. 자료에 제시된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 시작한다.
2.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 ① 자율 좌석제는 학습 효율을 높여 줄 수 없다. 학생들이 앞자리에서부터 앉기보다는 뒷자리에서부터 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은 학생을 독려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② 자율 좌석제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들과끼리만 앉게 되면 교우 관계를 넓히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자율 좌석제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자리에 앉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공부하기 싫은 학생들이 뒷자리를 찾아 앉도록 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 자율 좌석제 시행은 시기상조이다.
- ④ 자율 좌석제는 학습 의욕이 높은 학생들이 앞자리에서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는 동시에 뒷자리에 앉은 학생들에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율 좌석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 ⑤ 자율 좌석제를 시행하면 키가 작거나 눈이 나쁜 학생들이 뒷자리에 앉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들에게 예외적으로 좌석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써 보자.

[작문 일지]
오늘 작문 과제는 '배려'와 관련된 글감을 찾아 자기 성찰의 글을 쓰는 것이었다. 나는 우선 '배려'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사전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얼마 전 학교에서 은정과 있었던 일이 떠올라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로 했다. 또한 나의 성찰 과정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어떻게 조직하고 전개할지도 생각해 보았다.

[학생의 글]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피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지금껏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배려'라는 뜻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게 하였다.
어느 날 은정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성급한 목소리로 오늘 주변을 대신 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아르바이트를 가야 ㉡하는데, 주변 활동을 다 하고 나면 약속 시간에 늦게 된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잠시 머뭇거리자 은정이는 내일 아침 내가 해야 할 특별구역 청소를 대신 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날도 덥고 주변이 해야 할 일도 너무

많아 나는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하며 은정이에게 그러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작은 배려로 내일 아침에 귀찮은 특별구역 ㉣청소에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참기로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을 배려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오늘 '배려'라는 뜻을 보고 다시 생각해 보니 나는 진정한 배려를 한 게 아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은정이를 도와 준 것은 맞지만 진정으로 마음을 써서 도와왔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 않은 것도 배려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앞으로 누군가를 배려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마음을 다해 진정한 배려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9. '작문 일지'와 '학생의 글'을 고려할 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선택한 방법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 정의의 방식으로 '배려'의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한다.
- ㉡ '배려'와 관련된 일상적인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한다.
- ㉢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효과를 부각하여 예상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 ㉣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잘 드러나도록 글을 조직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0. 윗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맥상 적절한 어휘가 아니므로 '다급한'으로 고친다.
- ② ㉡: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는데'로 고친다.
- ③ ㉢: 자연스러운 연결을 위해 바로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④ ㉣: 조사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청소를'로 고친다.
- ⑤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11. 다음은 ‘ㅎ’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도출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자료	발음	도출한 결과
① 전화를 끊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끈는] [안는]	⇒ ‘ㄴ’ 뒤에 ‘ㄹ’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발음하지 않음.
②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싫어도 해야만 한다.	[오른] [시러]	⇒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함.
③ 장미는 여기에 놓고, 이 국화는 저기에 두어라.	[노코] [구과]	⇒ 받침 ‘ㅎ’ 뒤에 ‘ㄱ’이 오든, 받침 ‘ㄱ’ 뒤에 ‘ㅎ’이 오든 두 음을 합쳐서 [ㅋ]으로 발음함.
④ 여기에 놓는 것 보다는, 저기에 쌓는 것이 좋겠다.	[논는] [싼는]	⇒ 받침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함.
⑤ 밭 한 사발, 국 한 대접 변변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바판사발] [구칸대접]	⇒ 받침 ‘ㅂ, ㄱ’ 뒤에 ‘ㅎ’이 결합되는 경우, 둘 이상의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때는 [ㅍ, ㅋ]으로 발음함.

12.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제 12 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선생님 설명: 표준어 규정 12항은 ‘웃-’과 ‘윗-’이 그동안 심각한 혼란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윗-’으로 통일하기로 한 규정이에요. 예를 들어 ‘운동장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을 뜻하는 단어는 ‘웃목’이 아니라 ‘윗목’을 표준어로 삼지요. 그런데 ‘이 층 또는 여러 층 가운데 위에 있는 층’을 가리키는 단어는 ‘윗-’이 거센소리 앞에 있기 때문에 ‘윗층’이 아니라 ‘위층’을 표준어로 삼고,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어른’과 같은 경우는 ‘윗어른’이 아니라 ‘웃어른’을 표준어로 삼는 거예요.

- ① ‘맨 곁에 입는 옷’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래, 위’ 대립이 없기 때문에 ‘웃옷’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② ‘방향을 가리키는 말’인 ‘쪽’은 된소리로 시작하기 때문에 ‘윗-’과 결합할 때에는 ‘위쪽’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③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말은 명사 ‘위’에 맞추어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윗팔’을 표준어로 삼겠군.
- ④ ‘자기보다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아래, 위’의 대립이 있기 때문에 ‘윗사람’이 표준어가 되겠군.
- ⑤ ‘여러 채로 된 집에서 위에 있는 집채’를 나타내는 낱말은 ‘윗-’ 뒤에 거센소리가 오기 때문에 ‘위채’를 표준어로 삼겠군.

13.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문장을 고른 것은?

(가) 문법적인 오류

- 잘못된 시간 표현의 사용
(예) 선생님께서는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선생님께서는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 …… ㉠
- 이중 피동의 사용
(예) 축구 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
⇒ 축구 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

(나) 모호한 문장의 사용

- 부정문의 모호성
(예)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다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
⇒ 모든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다 온 것은 아니다. …… ㉢
- 비교 구문의 모호성
(예) 영화는 민수보다 게임을 더 좋아한다. [민수에 비해 영화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
⇒ 영화는 게임하는 것보다 민수를 더 좋아한다. ……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4. 다음 대화에 나타난 구어 담화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민 지: 선생님 집이 많으시네요. 제가 들어 드릴까요?
선생님: 민지네? 도와주면 고맙지. 요즘 어떻게 지내?
민 지: 잘 지내요! 그런데, 선생님 살이 좀 빠지셨네요?
선생님: 요즘 운동 시작했거든. 넌 무슨 운동하는 거 있니?
민 지: (고개를 가로 젓는다.) 예전에는 줄넘기라도 했는데…….
선생님: 왜, 요즘 많이 바쁘니?
민 지: 공부하랴 축제 준비하랴 조금 바빠요, 요새.
선생님: 힘내라! 참, 그런데 너 이번에 토론 대회에서 상 받았다며?
민 지: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좀 긴장했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늦었지만 축하해. 얘기하다보니 다 왔네, 교무실에. 민지야 고마워, 짐 들어줘서.
민 지: 천만예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래, 민지야 다음에 또 보자.

- ① 화제 전환이 자주 이루어진다.
- ②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체된다.
- ③ 필수적인 문장성분이 빈번하게 생략된다.
- ④ 특별한 의미가 없는 군말이 자주 사용된다.
- ⑤ 표정과 몸짓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한다.

15. <보기 1>의 ㉠~㉣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순화어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1 >

단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합성어, 파생어로 나누어진다. 이 중 합성어는 ‘산길’, ‘뛰놀다’와 같이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단어이다. 이와 달리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단어이다. 파생어는 ‘꽃사과’와 같이 ㉡ 접두사와 어근이 결합한 단어와 ‘잠보’와 같이 ㉢ 어근과 접미사가 결합한 단어로 구분할 수 있다.

< 보기 2 >

2

외래어를 순화한 말도 일반적인 단어 형성법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외래어	의미	구성 요소	순화어
매치업	서로 맞서서 대결함.	‘맞-’, ‘대결’	맞대결
다크서클	눈 아랫부분이 거무스름하게 그늘이 지는 것을 가리킴.	‘눈’, ‘그늘’	눈그늘
패셔니스타	맵시 있거나 맵시를 잘 부리는 사람.	‘맵시’, ‘-꾼’	맵시꾼

- | | | | |
|---|-----|-----|-----|
| | ㉠ | ㉡ | ㉢ |
| ① | 눈그늘 | 맞대결 | 맵시꾼 |
| ② | 눈그늘 | 맵시꾼 | 맞대결 |
| ③ | 맞대결 | 눈그늘 | 맵시꾼 |
| ④ | 맵시꾼 | 맞대결 | 눈그늘 |
| ⑤ | 맵시꾼 | 눈그늘 | 맞대결 |

빠른정답.

2	2	4	3	3
4	5	2	1	5
2	3	1	4	1

1. [출제의도] 담화의 맥락에 따른 화법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소집단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는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의 원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켜 주거나 주제를 구분하여 대화의 순서를 정하면 된다. ㉠에서 민호는 도윤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에 논의하기로 한 점에서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참여자의 특별한 문화적 배경 차이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에서 채원이는 자신이 며칠 전 본 신문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③ ㉡에서 채원이는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와 봤다는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도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비언어적 표현)과 ‘맞아’라는 말(언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적극 동조하고 있다. ⑤ ㉣에서 민호는 서영이가 말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다.

2. [출제의도] 담화에서 주도자와 협력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공동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소집단 대화에서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협력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듣기 전략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열린 질문하기, 수용하기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②이다.

3. [출제의도] 담화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은 라디오 대담 상황으로, 진행자와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정당행위’의 개념과 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법리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다. 전문가는 마지막 말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진행자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대답을 진행하고 있다. ② 전문가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정당행위를 설명하고 있다. ③ 진행자는 세 번째 말에서 전문가가 한 말의 핵심 내용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전문가는 스피어더맨이 악당과 싸우다 남의 건물을 부숴했다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표 계획의 실제 반영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는 캡사이신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는 내용이다. 학생의 발표에서 이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다.

5. [출제의도] 청중들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실제 발표에서 학생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 우유와 캡사이신의 관계를 시각자료를 활용하여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발표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출제의도] 필자가 활용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E]에 드러나듯 이 글의 필자는 예상 독자를 학생과 선생님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과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점은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필자가 속한 학교의 구성원들과 ‘관련된, 학급회의 시간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였다. ② 최근 본 다큐멘터리에서 얻은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③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밝히고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며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다수의 독자가 보는 학교 신문에 실리는 글임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수정 및 보완한다.

(가)와 (다)에서 학급회의 시간 편성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으므로 [A]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② [B]에서는 문제 결정, 문제 해결과 관련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가) - 2를 통해 갈등 해소의 측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있다고 했는데, (나)에 나타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④ (나)에서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 개진 절차를 배운다고 하였고, (다)에서는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D]에서 활용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자료를 참조하여 <조건>에 맞게 글을 쓰도록 한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은 자율 좌석제 관련 자료를 읽고 자료에 제시된 견해의 일부를 인정한 후에,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의 첫 문장 ‘자율 좌석제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자료의 견해를 일부 인정한 후,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앉게 되면 교우 관계를 넓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에서 문

제점을 지적한 후, 세 번째 문장,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요구하는 내용에 부합한다.

[오답풀이] ①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단점을, 두 번째 문장에서 첫 문장의 근거를,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을 근거로 시행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글감을 찾아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한다.

‘학생의 글’은 ‘작문 일지’의 내용처럼 사전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상적인 학교생활의 경험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기>의 항목은 순서대로 ㉠, ㉡이다. 그러나 ㉢, ㉣와 같이 ‘배려’의 효과나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학생의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

10. [출제의도] 작성한 초고를 고쳐 쓴다.

㉠은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이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에 대해 생각에 대해 반성을 시작하는 세 번째 문단의 계기를 밝힌 것이다. 문장의 서술어 ‘때문이다’는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삭제된다면 ‘작문 일지’에서 밝힌 성찰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11. [출제의도] 발음 규칙 탐구하기

‘옴은’은 [오른]으로, ‘싫어’는 [시러]로 발음됨을 통해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이 발음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받침 ‘ㄹ’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뒤 음절의 첫소리로 발음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표준어 규정 적용하기

표준어 규정 제12항 다만 1의 규정에 의하면,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표기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말’인 ‘위팔’은 거센소리 ‘ㅍ’ 앞에 ‘위-’가 결합되므로 ‘위팔’로 적는 것이 표준어 규정에 따른 표기이다.

13. [출제의도] 문장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기

‘선생님께서 아직 도착하고 있지 않으십니다.’는 ‘도착’이라는 완료의 의미와 ‘~고 있지 않다’의 진행의 시간 표현이 상충되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아직 도착하지 않으셨습니다.’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축구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여진다.’는 피동접사

‘-이-’와 피동의 표현 ‘-어지다’가 동시에 사용된 이중피동의 문장이므로 문법적으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따라서 ‘축구경기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다(㉡).

‘학생들이 소풍 장소에 아무도 오지 않은 경우’에는 ‘소풍 장소에 학생들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로 표현해야 한다(㉢). ‘민수에 비해 영희가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에는 ‘민수와 영희 둘 중에 영희가 게임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로 표현해야 한다(㉣).

14. [출제의도] 구어 담화의 특징 파악하기

군말이란 담화의 상황에서 ‘음’, ‘어’처럼 특별한 의미 없이 사용되는 군더더기 말을 의미하는데, 이 대화에서는 이러한 군말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조금 바빠요, 요새.’, ‘다 왔네, 교무실에.’, ‘민지야 고마워, 짐 들어줘서.’와 같이 어순이 자유롭게 교체되고 있다. ③ ‘제가 들어 드릴까요?’에서는 목적어가, ‘요즘 어떻게 지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⑤ ‘(고개를 가로 젓는다.)’,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에서 볼 수 있듯이 표정과 몸짓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단어 형성법 이해하기

‘눈그늘’은 어근 ‘눈’과 어근 ‘그늘’이 결합한 합성어로 ㉠에 해당하고, ‘맞대결’은 접두사 ‘맞-’과 어근 ‘대결’이 결합한 파생어로 ㉡에 해당하며, ‘맷시꾼’은 어근 ‘맷시’와 접미사 ‘-꾼’이 붙어 이루어진 파생어로 ㉢에 해당한다.